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50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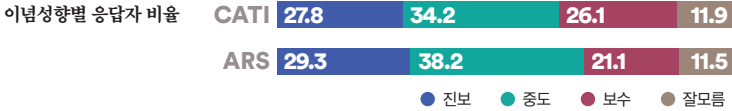
제65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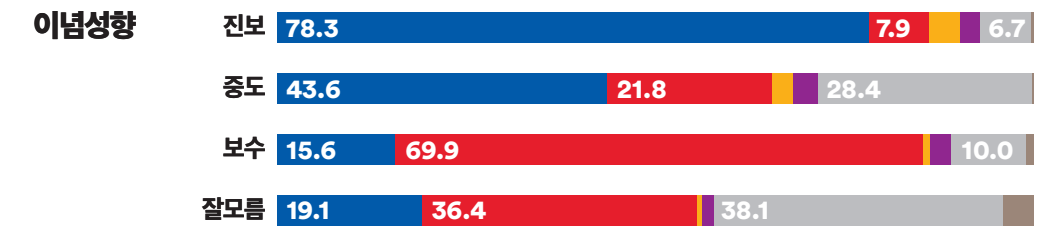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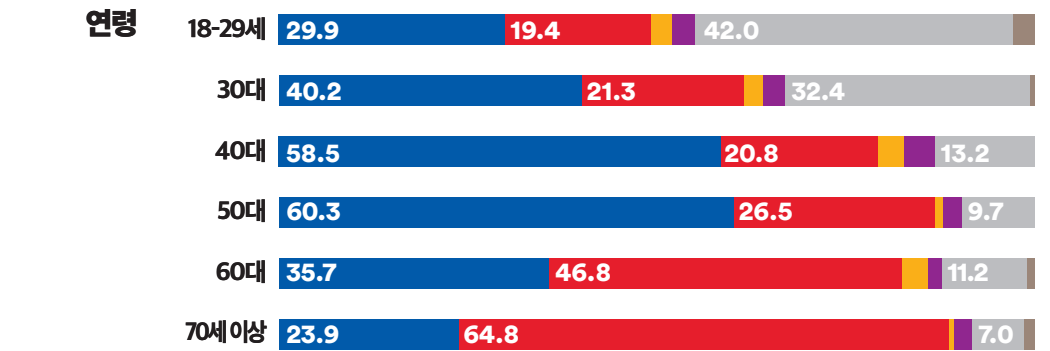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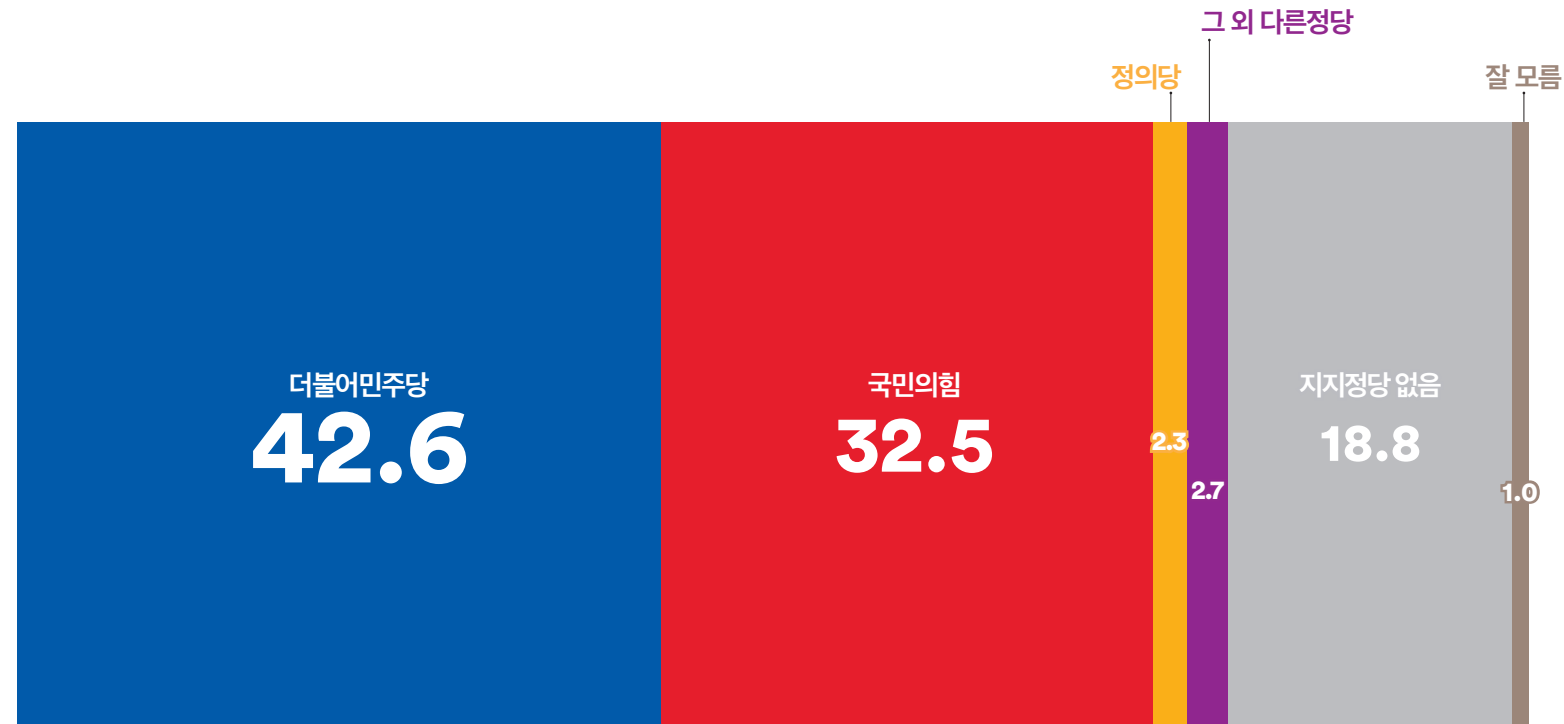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17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17	100.0%	1,017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성별	남성	512	50.3	503	49.5	0.98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5	49.7	514	50.5	1.02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1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만18~29세	170	16.7	164	16.1	0.96		
응답률	10.3% [총 통화시도 9,847명]			30대	153	15.0	151	14.8	0.99		
조사기간	2023년 12월 08일 ~ 12월 09일(2일간)			40대	192	18.9	183	18.0	0.95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6	19.3	199	19.6	1.02		
				60대	169	16.6	174	17.1	1.03		
				70세 이상	137	13.5	146	14.4	1.07		
			지역	서울	192	18.9	190	18.7	0.99		
				인천·경기	320	31.5	325	32.0	1.02		
				대전·세종·충청	109	10.7	107	10.5	0.98		
				광주·전라	104	10.2	98	9.6	0.94		
				대구·경북	98	9.6	99	9.7	1.01		
				부산·울산·경남	150	14.7	153	15.0	1.02		
				강원·제주	44	4.3	45	4.4	1.02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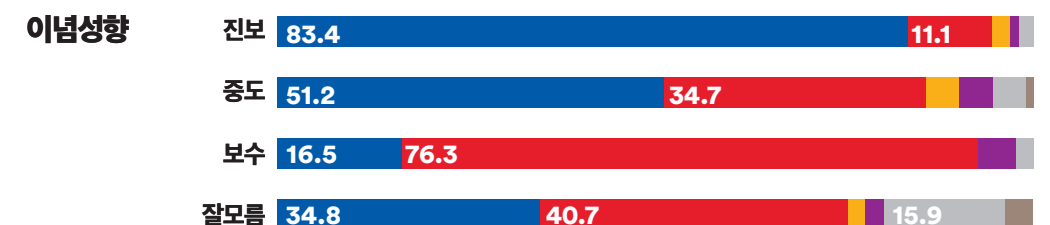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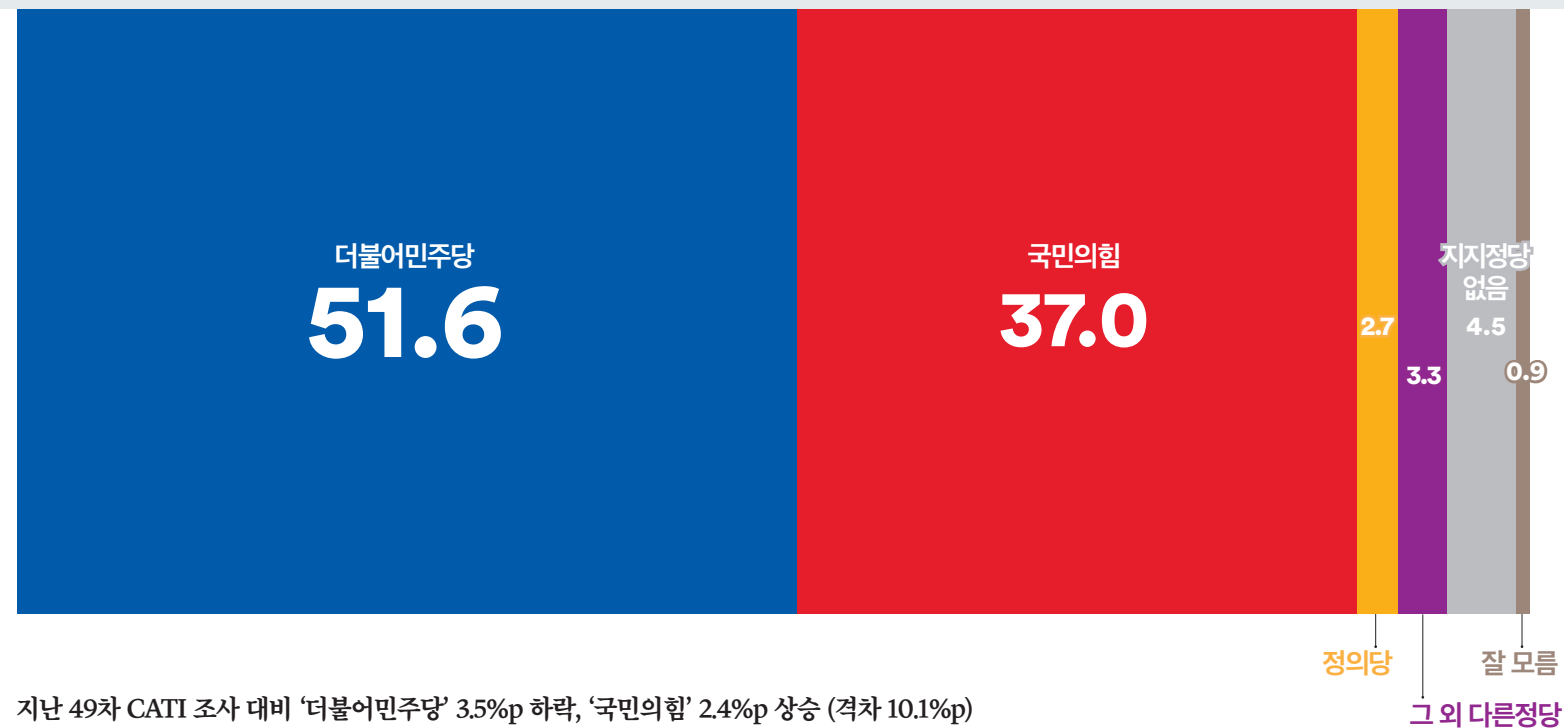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1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1	100.0%	1,001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23	52.2	497	49.7	0.95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78	47.8	504	50.3	1.05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1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만18~29세	119	11.9	161	16.1	1.35		
응답률	2.3% [총 통화시도 43,947명]			30대	137	13.7	149	14.9	1.09		
조사기간	2023년 12월 08일 ~ 12월 09일(2일간)			40대	194	19.4	180	18.0	0.93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4	196	19.6	0.92		
				60대	189	18.9	173	17.3	0.92		
				70세 이상	148	14.8	142	14.2	0.96		
			지역	서울	193	19.3	187	18.7	0.97		
				인천·경기	321	32.1	320	32.0	1.00		
				대전·세종·충청	101	10.1	106	10.6	1.05		
				광주·전라	100	10.0	98	9.8	0.98		
				대구·경북	99	9.9	98	9.8	0.99		
				부산·울산·경남	146	14.6	149	14.9	1.02		
				강원·제주	41	4.1	43	4.3	1.05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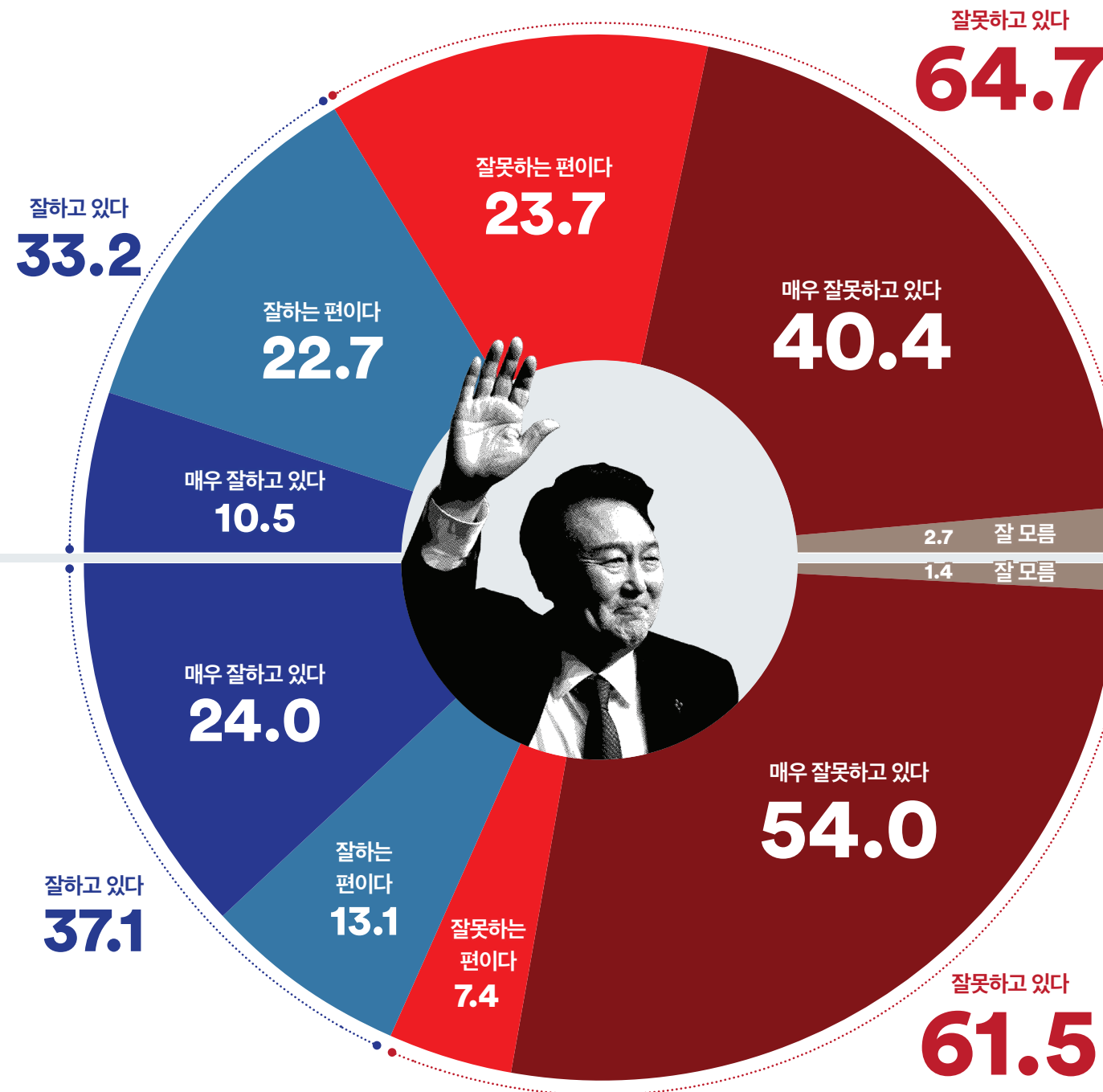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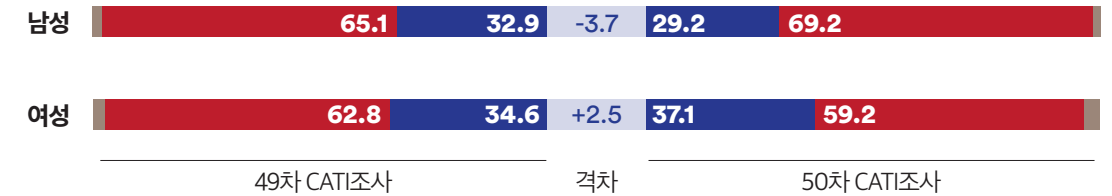
지난 49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5%p 하락, '국민의힘' 2.4%p 상승 (격차 10.1%p)
 지난 64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6%p 상승, '국민의힘' 1.5%p 상승 (격차 14.6%p)
 두 조사 모두 경인, 호남권 (ARS 조사는 서울, 충청권 포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
 30·40·50대,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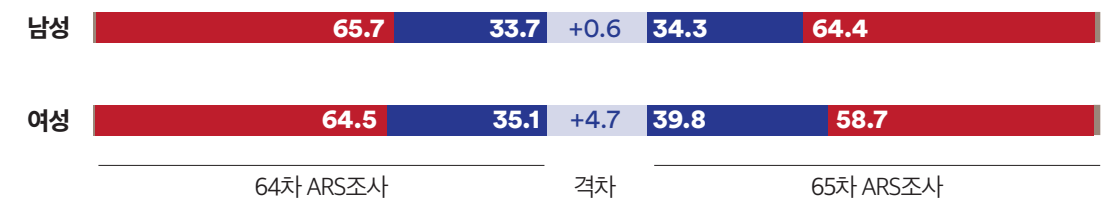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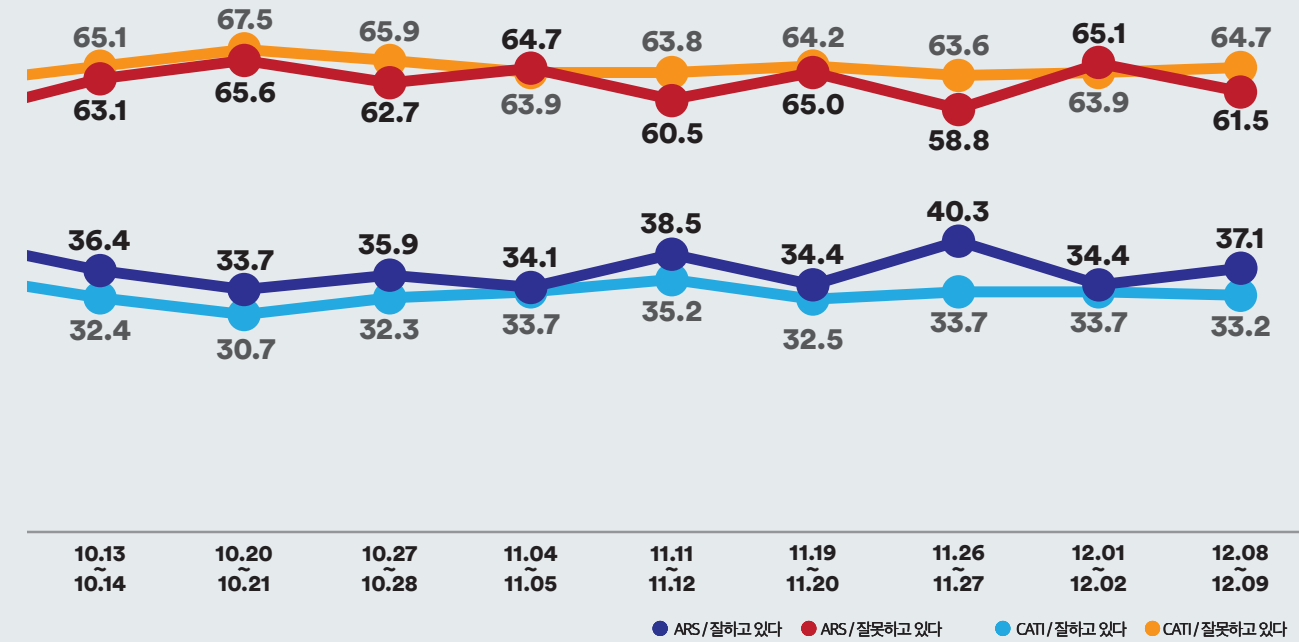
CATI



지난 49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 0.5%p 하락, '부정' 평가 0.2%p 상승 (격차 30.9%p)
 지난 64차 ARS 조사 대비 '긍정' 평가 2.7%p 상승, '부정' 평가 3.5%p 하락 (격차 24.4%p)
 중도층의 긍·부정 평가 격차는 CATI 조사에서 51.2%p, ARS 조사에서 29.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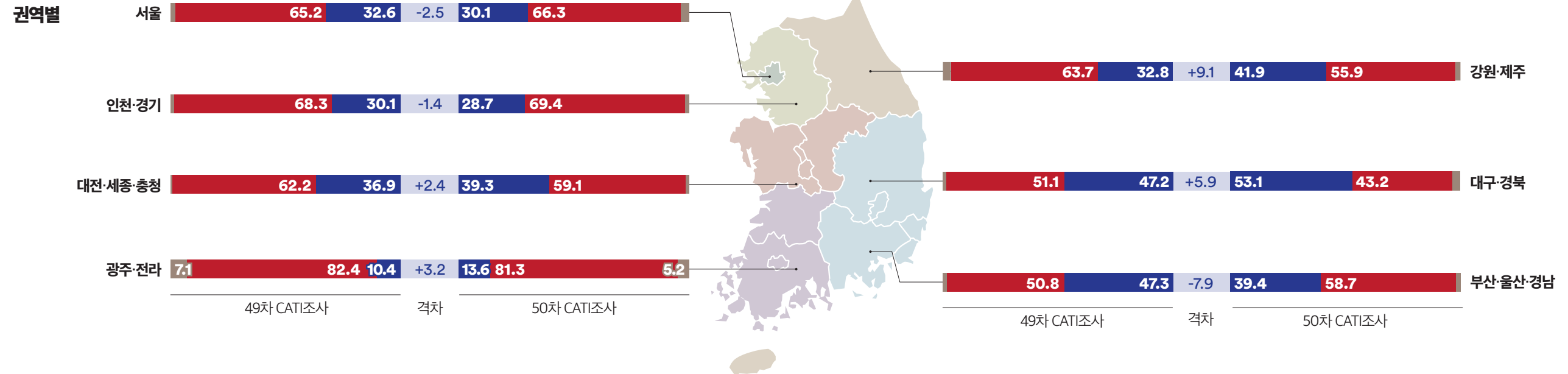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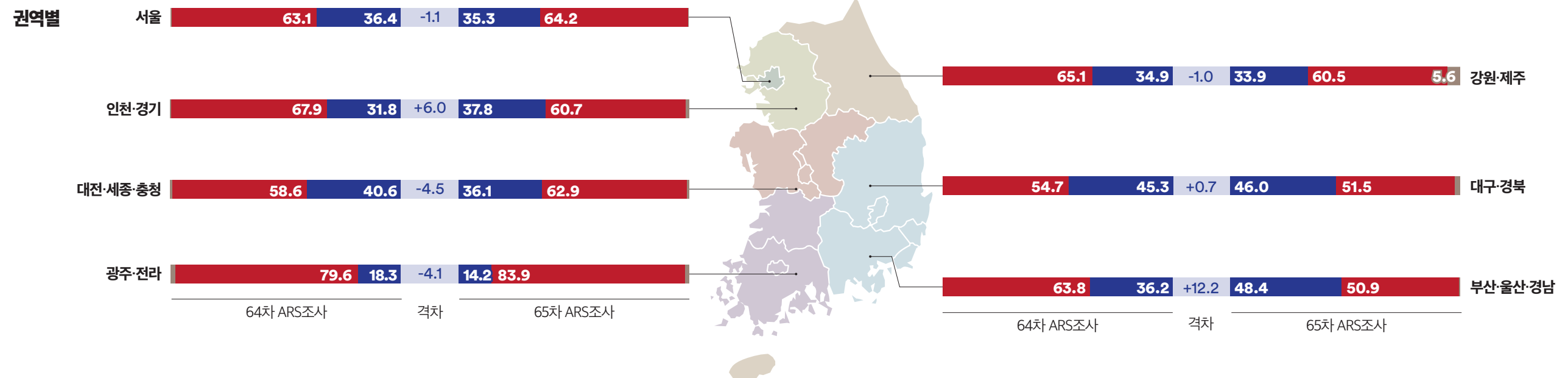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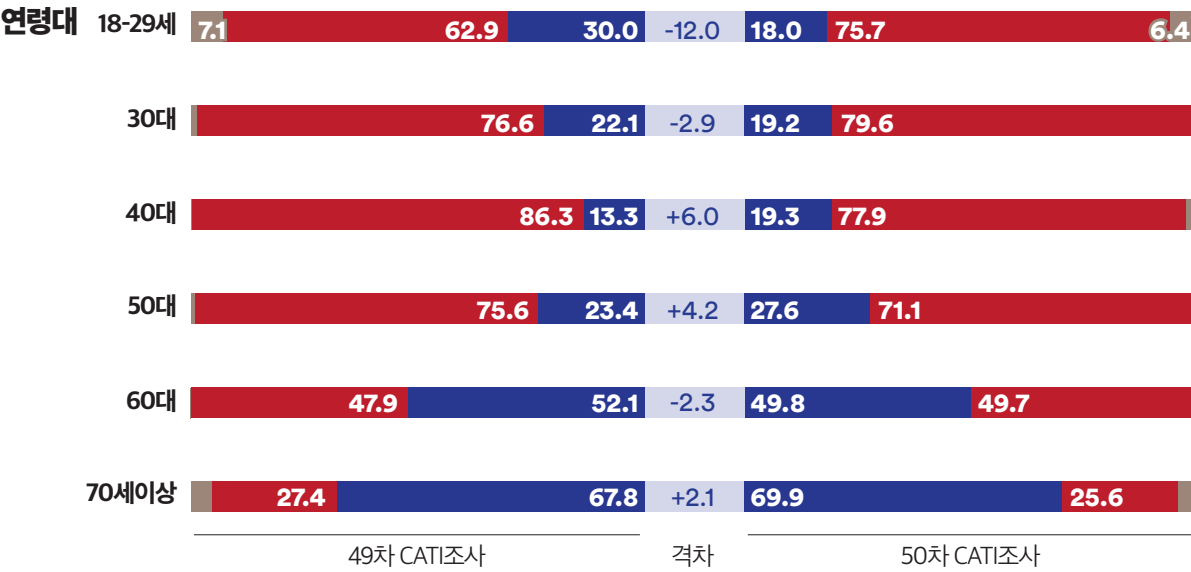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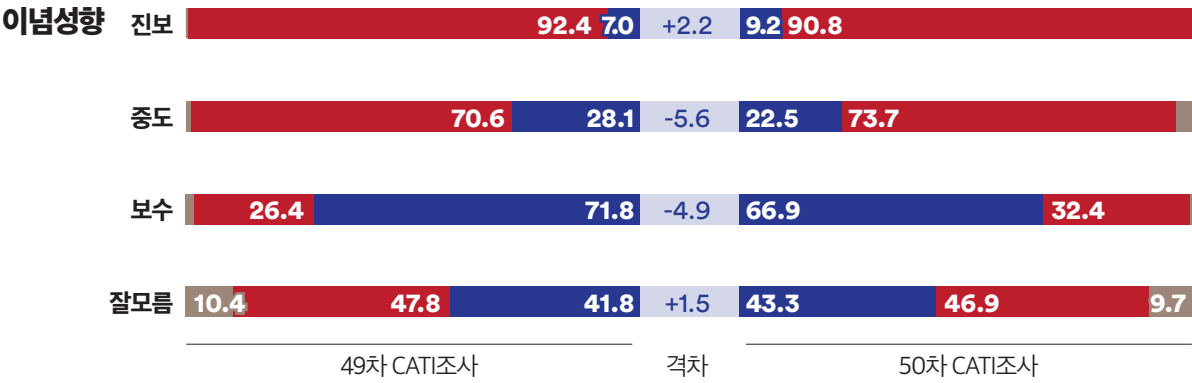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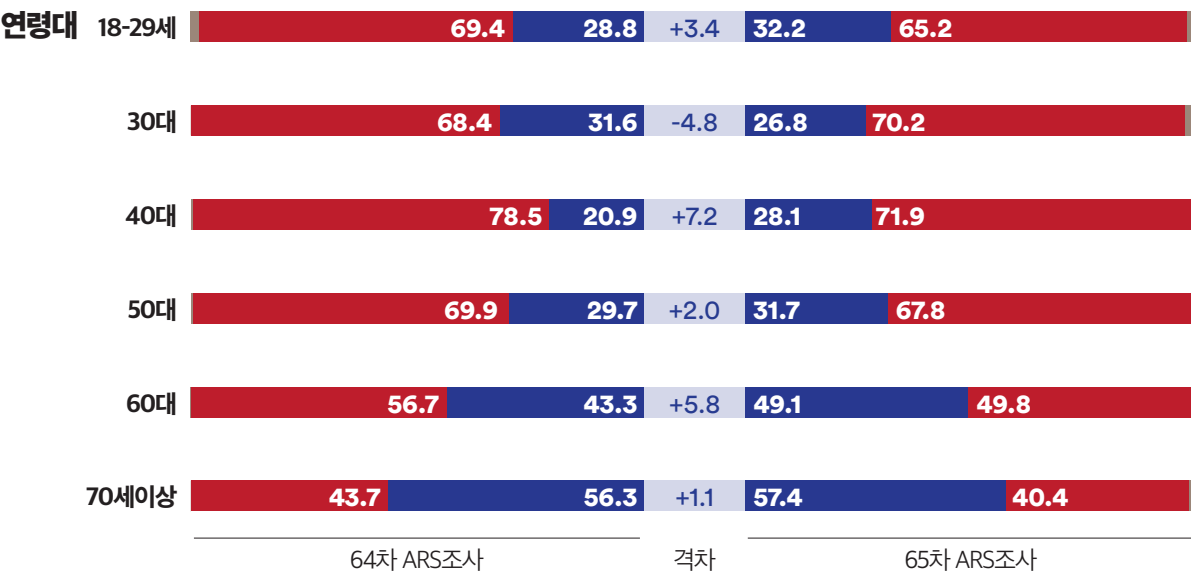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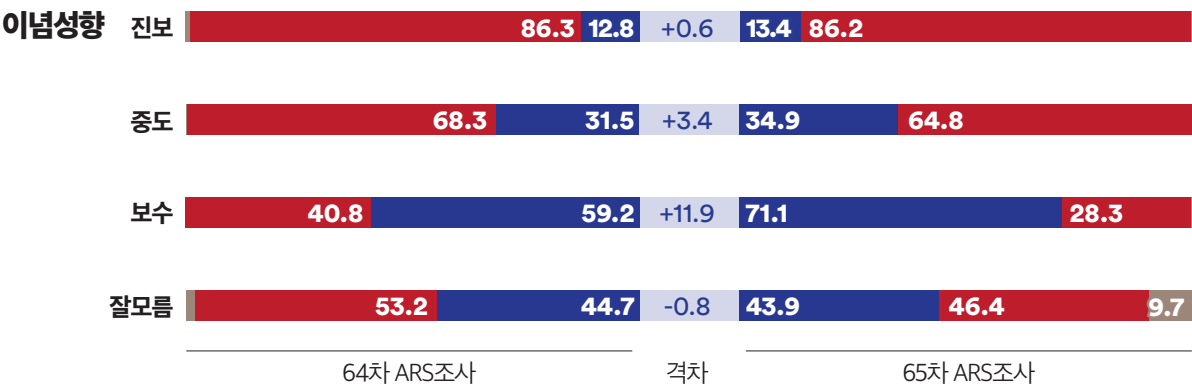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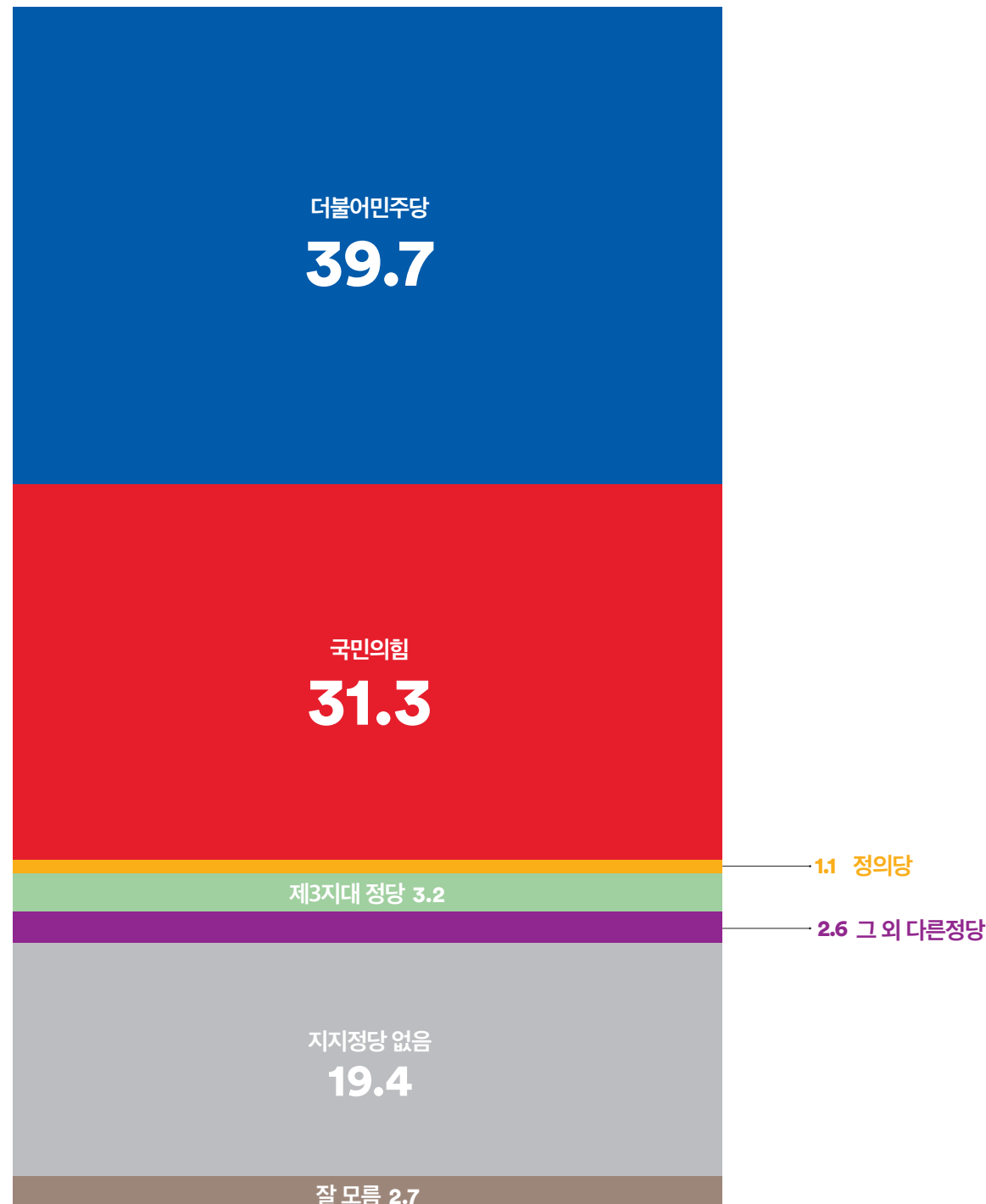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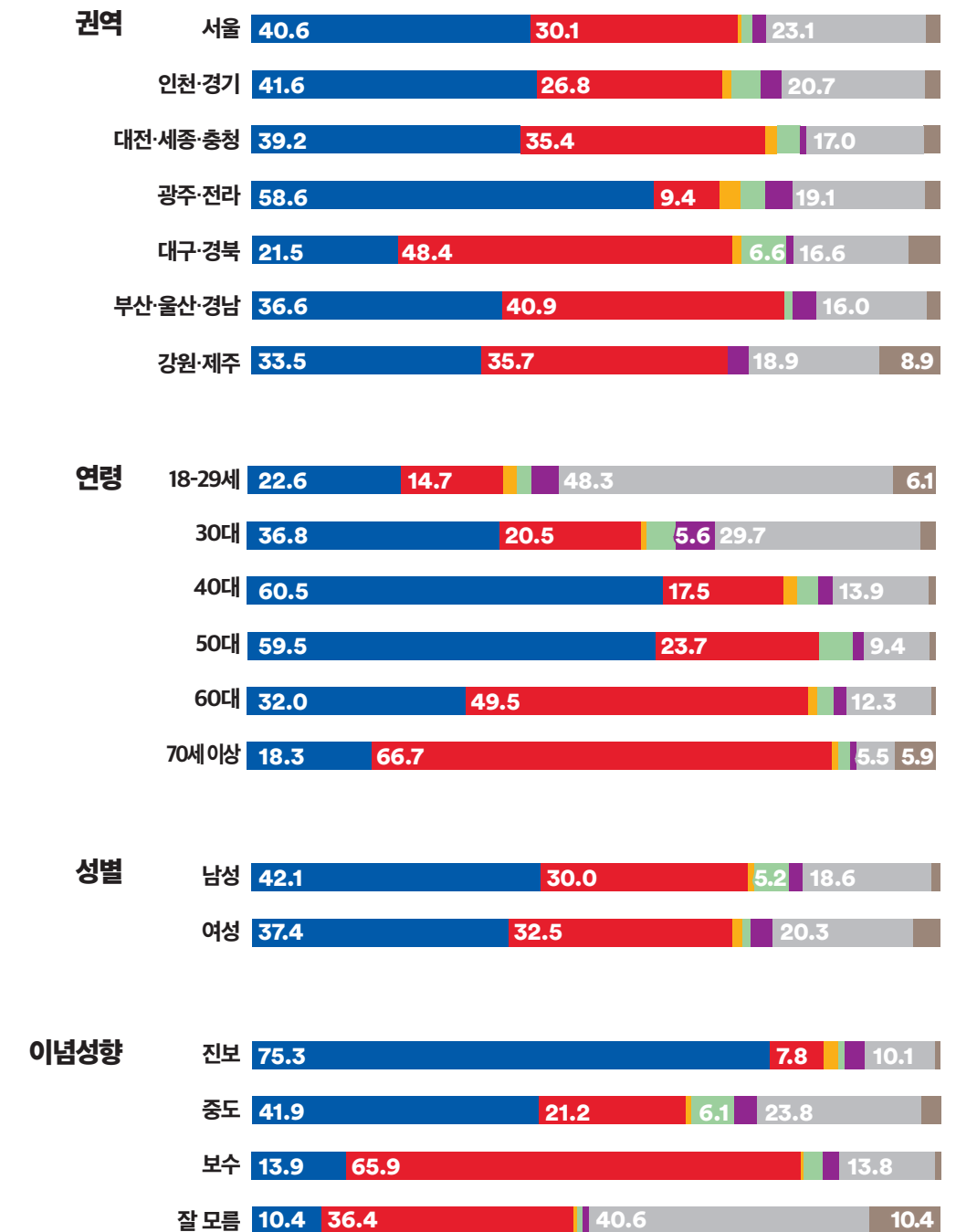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4명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 '더불어민주당' 우세 (양당 간 격차 8.4%p)
TK와 PK, 강원·제주에서는 '국민의힘',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섬
남·녀 모두, 중도층, 5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했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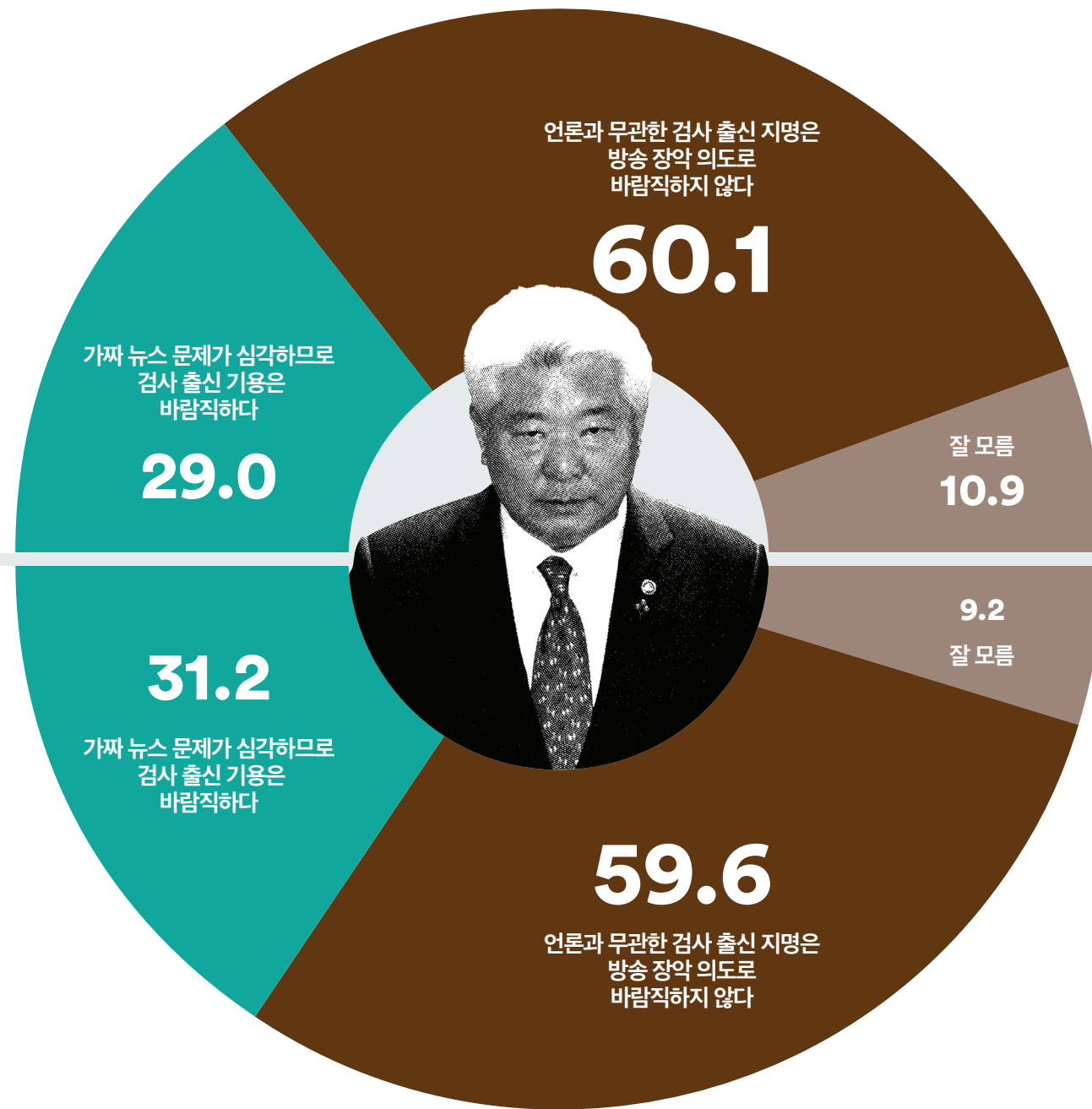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제3지대 정당
 ■ 그 외 다른정당
 ■ 없음
 ■ 잘 모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

Q.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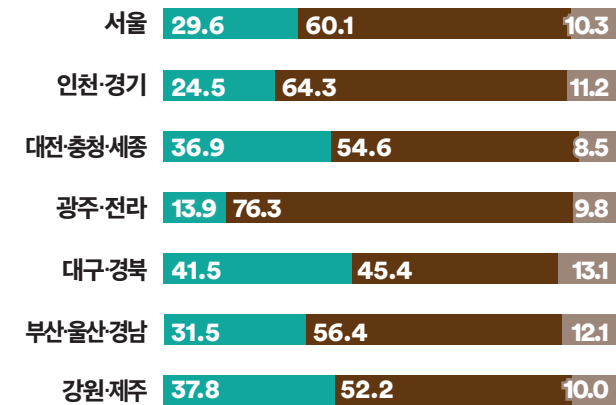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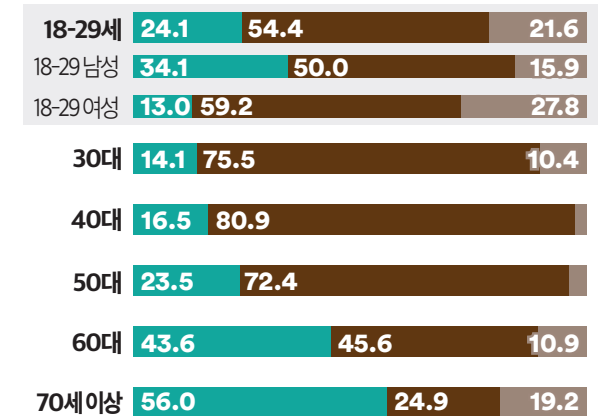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압도적 격차를 보임
CATI 조사의 수도권·호남·PK, ARS 조사의 TK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모든 성별, 50대 이하 연령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우세
중도층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하며, 응답 격차는 CATI 조사 45.3%p, ARS조사 3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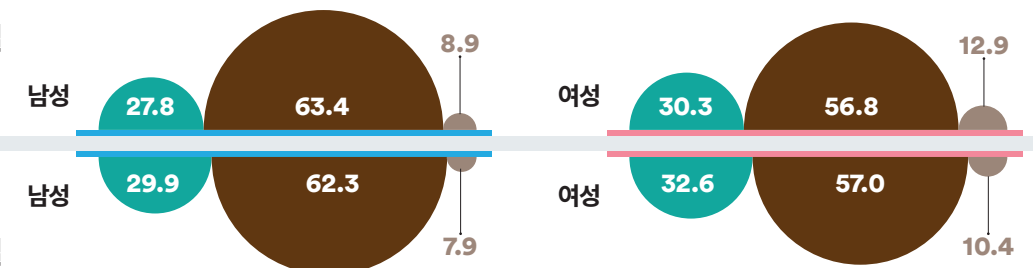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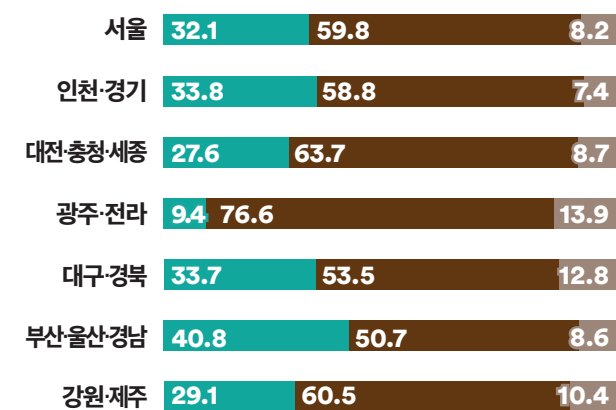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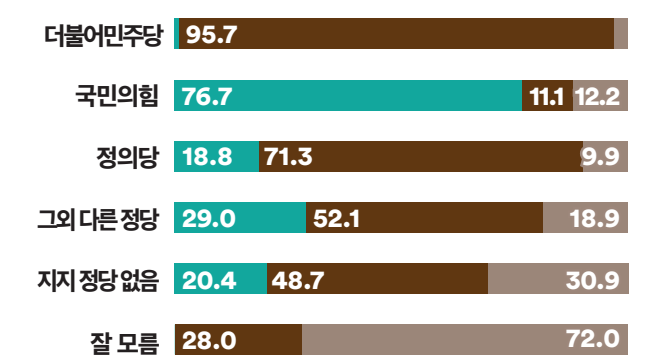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바람직하다 (Good idea) 바람직하지 않다 (Bad idea) 모르겠다 (Don't know)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반복해서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무려 14번이다.
날짜로 따져보니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한 바 있다.”
“이번 법원카드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작년 10월에 두 번,
그리고 오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
“지금 저희 비서실은 업무가 마비됐다.
경기도청이 받는 이 업무방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2023.12.4. 김동연 경기도지사 압수수색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내용 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적법한 수사로
적절하다

46.7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 수사로
적절하지 않다

46.3

잘 모름
6.9

ARS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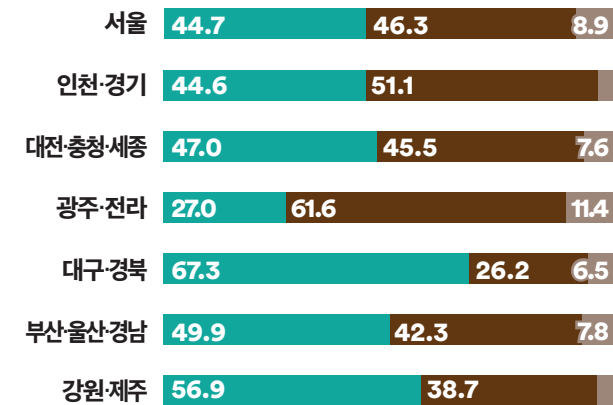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적법한 수사로
적절하다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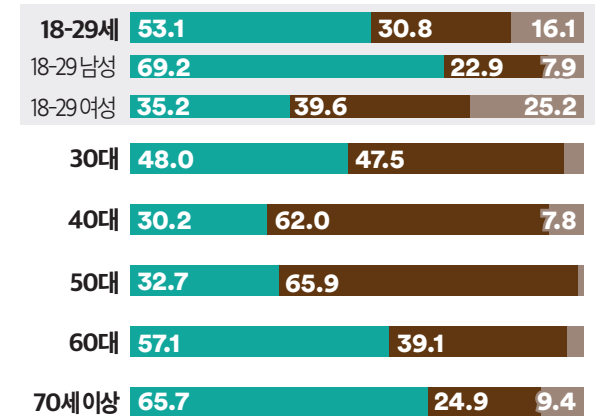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 수사로
적절하지 않다

5.8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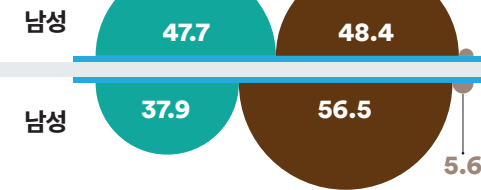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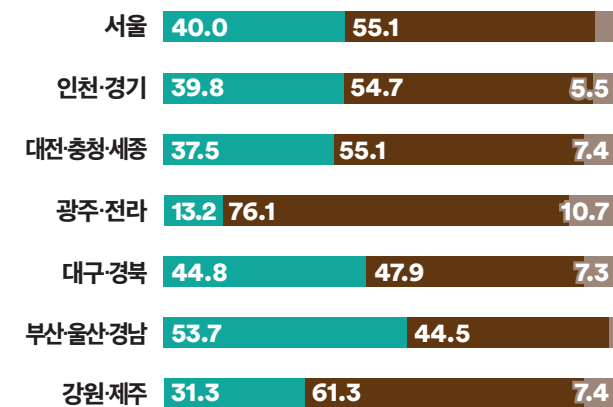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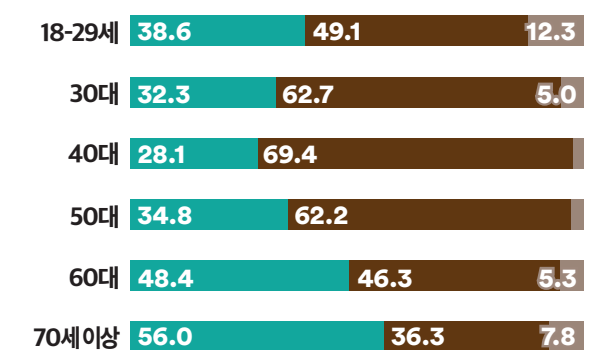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CATI 조사는 0.4%p차의 초 박빙을 보인 반면, ARS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5.8%p 격차로 우세

CATI 조사의 20대·60대 이상, ARS 조사의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

CATI 조사의 40·50대, ARS 조사의 30·40·50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중도층의 경우 CATI 조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5%p 앞서고, ARS 조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8.0%p 우세

적법한 수사로
적절하다

정치수사로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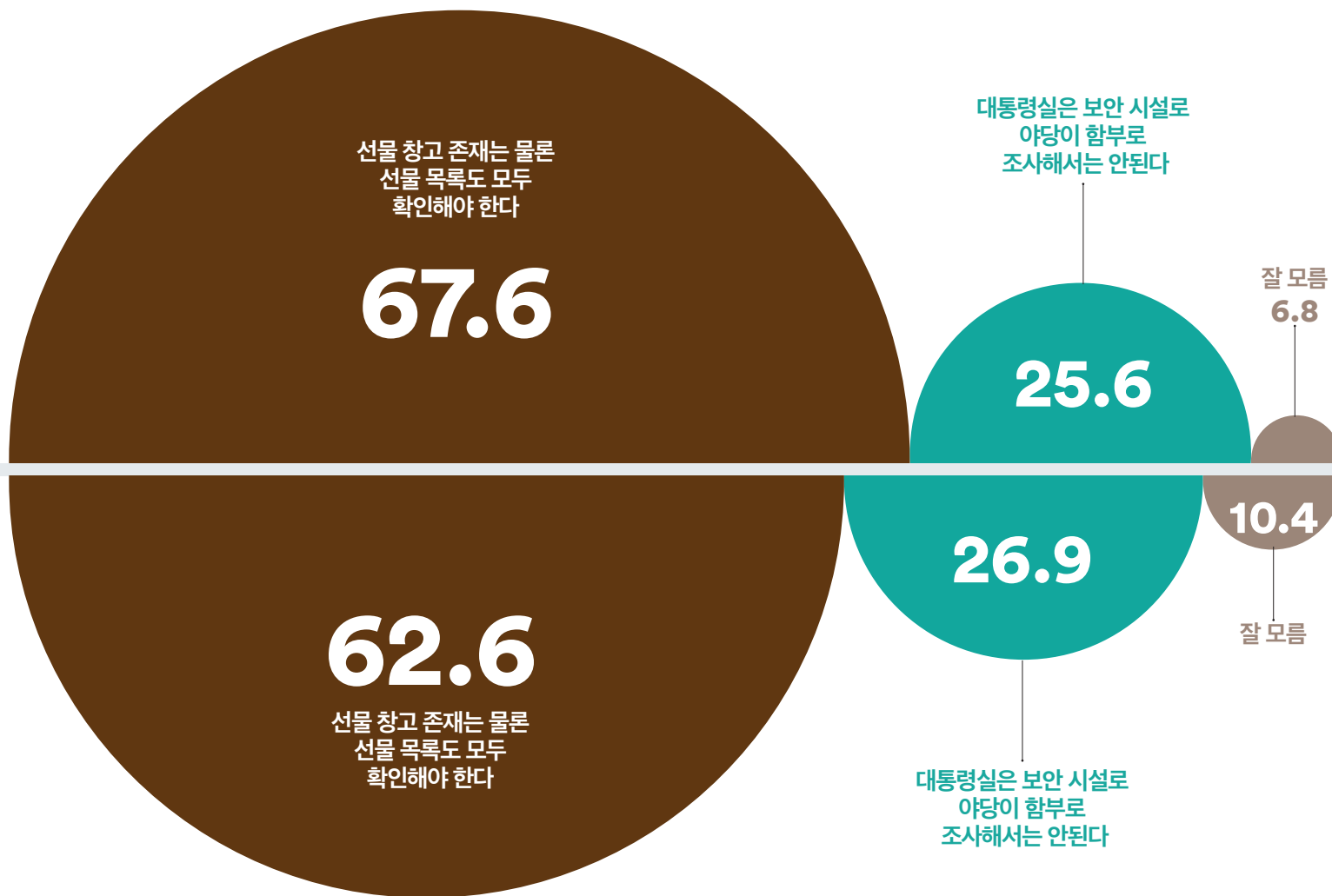
모르겠다

대통령실의 선물 반환 창고 확인 필요여부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받은 고가의 명품 가방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물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창고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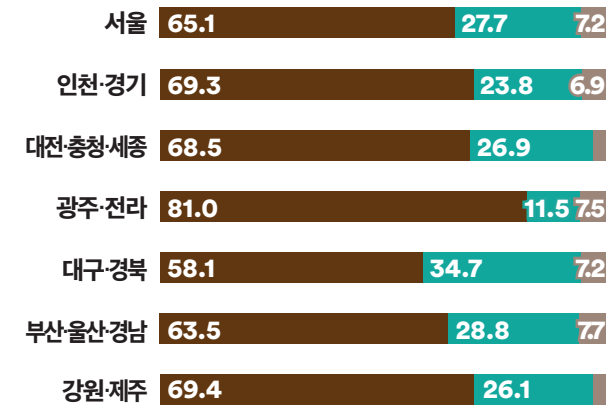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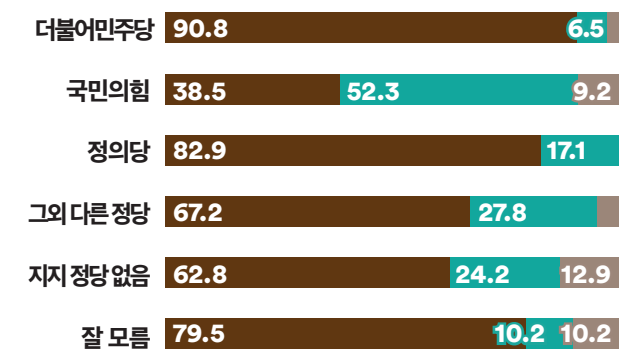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창고는 물론 목록도 확인해야 한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창고, 목록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를 보임
 두 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창고, 목록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38.5%(CATI), 21.2%(ARS), 보수층의 48.8%(CATI), 35.7%(ARS)는 '창고, 목록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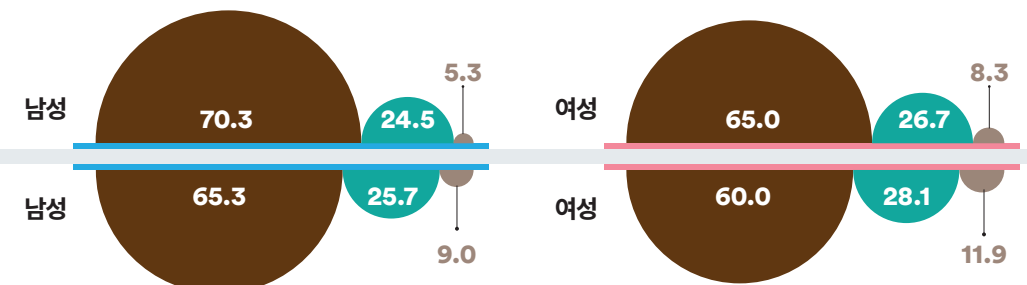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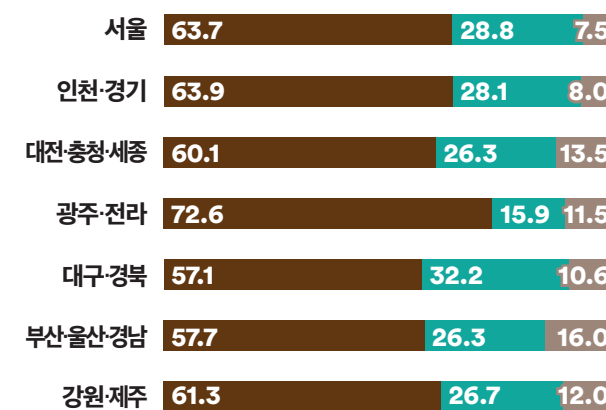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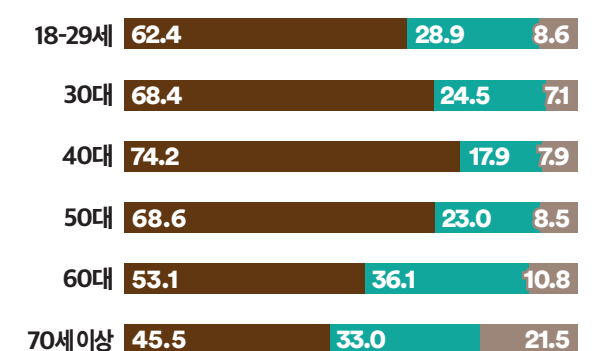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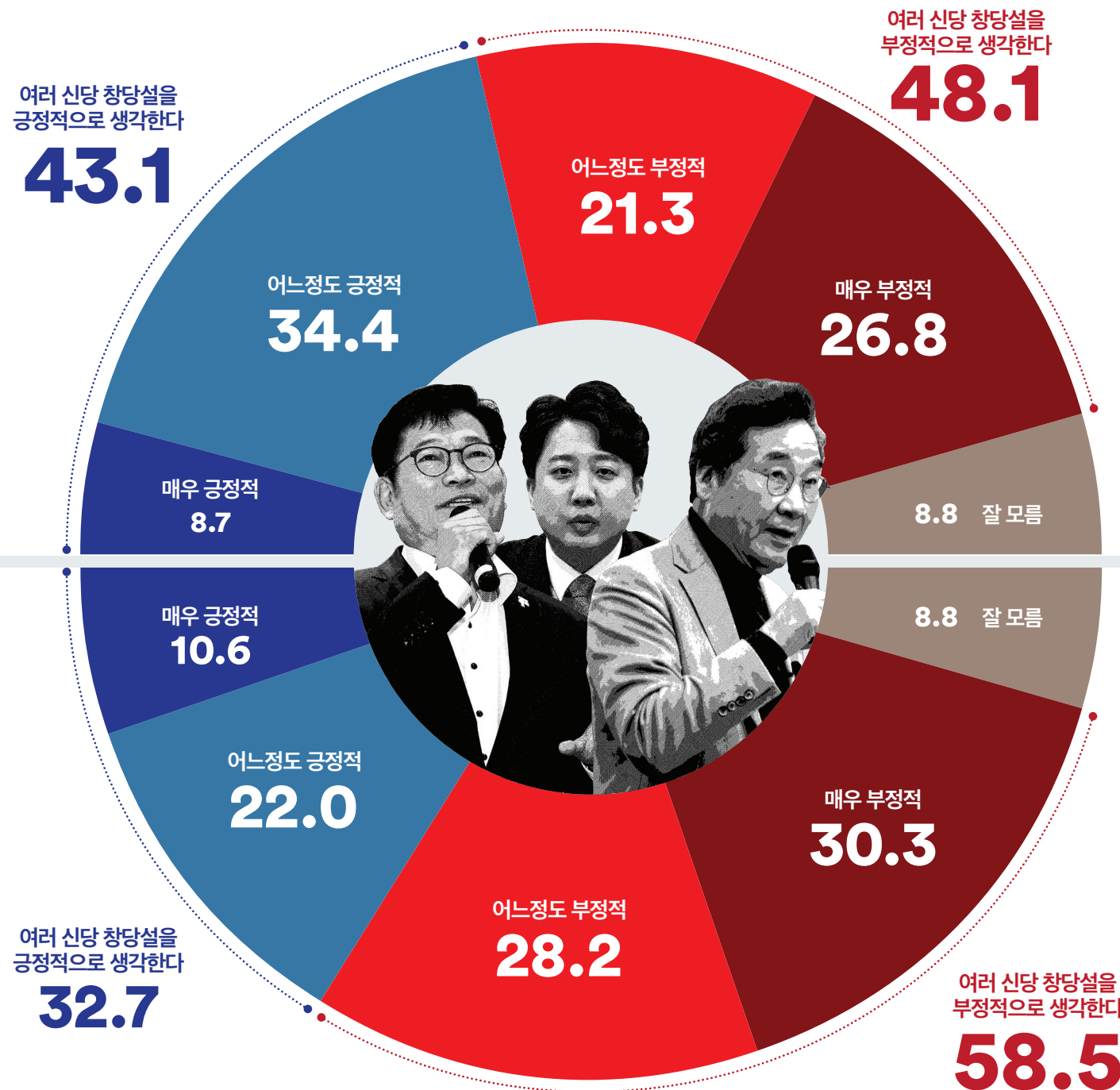
선물 창고 존재는 물론 선물 목록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보안 시설로 야당이 함부로 조사해서는 안된다
 모르겠다



다양한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

Q. 최근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여러 신당의 창당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두 조사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앞서거나 우세 (격차 CATI 5.0%p, ARS 25.8%p)

연령대별로, CATI 조사의 경우 30대 이하의 '긍정적'이란 응답이 우세한 반면, 50대 이상은 '부정적'이란 응답 우세

ARS 조사는 '긍정적'이란 응답이 1.2%p 소폭 앞선 30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부정적'이란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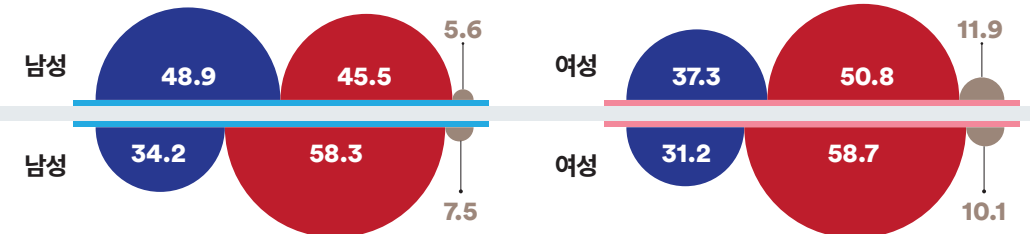
권역

서울	42.2	50.6	7.3
인천·경기	45.8	44.5	9.7
대전·충청·세종	52.2	39.8	8.0
광주·전라	40.2	53.8	6.0
대구·경북	38.8	51.1	10.0
부산·울산·경남	37.3	52.4	10.3
강원·제주	40.6	50.6	8.9

연령

18-29세	52.4	29.6	18.0
18-29 남성	60.2	28.5	11.3
18-29 여성	43.8	30.7	25.5
30대	58.9	33.6	7.5
40대	46.5	48.6	
50대	39.0	56.1	
60대	36.7	55.5	7.8
70세 이상	24.9	63.8	11.2

성별



권역

서울	33.6	58.3	8.0
인천·경기	34.7	57.6	7.7
대전·충청·세종	33.5	55.9	10.6
광주·전라	30.2	58.2	11.6
대구·경북	32.7	56.6	10.7
부산·울산·경남	30.3	62.3	7.4
강원·제주	24.8	64.9	10.4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0.7	61.7	7.6
국민의힘	31.6	60.7	7.7
정의당	43.1	48.1	8.9
그외 다른 정당	62.5	34.4	
지지 정당 없음	36.6	36.6	26.8
잘 모름	28.0	11.7	60.2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12_04

여론조사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